



캄보디아 주류시장을 알아보자!

빠르게 성장하는 캄보디아 주류시장

캄보디아 주류 판매액은 2019년 기준, 약 15억 8,015만 달러로 2014년 대비 5년 사이에 약 100% 성장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시장이 정체된 일부 선진국과는 달리 캄보디아 주류시장은 소득 증가와 여성의 주요 소비층 편입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주류 판매 제한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단위 : 달러)

종류	2014	2019	비중
맥주	6억 9,700만	14억 2,985만	90.5%
양주	7,070만	1억 3,965만	8.8%
와인	590만	1,065만	0.7%
합계	7억 7,360만	15억 8,015만	100%

자료 Euromonitor

캄보디아 주류시장은 크게 맥주, 와인, 양주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맥주는 국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저렴한 가격,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투자 등으로 캄보디아 주류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캄보디아 맥주시장의 약 70%는 5개의 브랜드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브랜드는 캄보디아(Cambodia), 앵커(Anchor), 앙코르(Angkor) 등으로 캄보디아 내에서 생산한다. 위 브랜드들의 상품은 1캔당 약 0.6~0.7달러(한화 약 700~800원)로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되는 중이다. 또한 옥외광고, 콘서트 개최, 상금 및 1+1 증정 등 다양한 홍보 및 프로모션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여가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 1 Rio 제품
- 2 Spy 제품
- 3 진로 EDM 페스티벌
- 4 한국 소주 온라인 홍보 콘텐츠

자료 Rio, EVSB 페이스북
Jinro Soju Cambodia 페이스북



**캄보디아
맥주 브랜드
프로모션**

자료
Cambodia Beer BMC,
Anchor Beer 페이스북

한국 주류 현지 진출 현황

한국 주류 또한 캄보디아 주류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진출하여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 2020년 對캄보디아 한국 주류 수출액을 살펴보면 과일소주, 소주, 탁주의 경우 각각 약 51%, 54%, 63% 증가하여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맥주의 경우 관세(35%)와 특별세(20%)가 부과되어, 한국 등 외국에서 생산하여 수입된 맥주는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위 : 달러, %)

구분	2019	2020	증감율
과일소주	514,575	777,424	51.1
소주	418,806	643,657	53.7
탁주	31,205.0	50,980.0	63.4

자료 농식품수출정보(KATI)

캄보디아에 진출한 주류 중 특히 한국의 과일소주 인기가 높다. 경쟁상품인 태국산 스파이(Spy), 중국산 리오(Rio) 등과 가격은 비슷하지만 도수가 약 3~4배 정도 높아 한국산 과일소주의 가성비가 더 좋다는 평이다. 또한 한국에서 보기 힘든 딸기, 애플망고, 요구르트 맛 등 다양한 제품이 수출용으로 개발되고 유통되면서 골라 마시는 재미를 주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경쟁상품의 경우 세련된 병 디자인으로 이목을 사로잡는다는 점에 반해 한국산 과일소주 제품은 투박한 녹색 병을 사용하고 있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캄보디아 MZ세대의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주류 브랜드는 이들을 타겟으로 2017년부터 EDM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최초의 EDM 페스티벌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유명 DJ를 섭외하는 등 캄보디아에 한국의 '술' 뿐만 아니라 '술문화'까지 함께 전파하였다.

**캄보디아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 주류**



자료
aT 캄보디아사무소
자체조사

Key Point

본격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감염이 시작한 2020년 2분기부터 캄보디아 정부는 간헐적인 주류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식당 내 식사 금지 명령과 주류 소비가 많은 결혼식과 장례식을 통제하고 있어 올해 주류시장은 감소세가 예상된다. 특히 주류 소비의 또 다른 축인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 역시 주류 소비의 감소 원인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캄보디아 주류시장 역시 일상으로 회복되며 과거에 이어 점진적인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시장 전망은 밝다. 다만, 소비층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다양한 브랜드가 모두 수입되어 한편으로 캄보디아 주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평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거나, 꾸준한 광고와 프로모션을 모색하여 시장개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